전태일, 그가 밝힌 등불을 보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글 천성윤 **사진** 박기현

노동운동의 상징과 같은 건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기점을 마련한 전태일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가 건립한 곳이다. 붉은 벽돌의 각진 형태를 띠고 있는 이곳은, 3층까지는 기념관이고 그 위 상부층은 여러 노동조합의 사무실이기도 하다. 이름하여 '노동복합시설'로 마치 건물 자체가 노동운동의 거점과도 같다. 노동조합들은 이곳, 전태일기념관에서 우리 사회에 산재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있다. 외관은 한눈에 봐도 아주 독특하다. 전태일이 생전 쓴 편지가 글자 그대로 철판으로 만들어져 벽면을 채우고 있다. 마치 하나의 조형 예술 작품 같은 이 벽면은 전태일 기념관의 상징이다.

그를 기억하며, 추모하며

전태일기념관의 1층은 로비 겸 미술작품 전시 공간으로, 2층은 강당, 3층은 메인 상설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전태일의 일대기와 그가 꿈꿨던 세상을 엿볼 수 있다. 전태일의 어린 시절과 그가 겪은 고난, 그리고 인권운동가가 되어 노동자들을 일깨우는 과정이 총 4부로 나뉘어 그려진다. 1부는 전태일의 어린 시절, 2부는 전태일이 바라본 세상, 3부는 전태일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행했던 실천, 그리고 4부에서는 최후의 불꽃이 되기까지의 모습을 그렸다. 관람이 막바지에 이르면 전시실 끝 그에게 작은 추모 편지를 써서 매달 수 있는 나무를 만나게 된다. 가난했지만 배움에 행복했고 나눔을 기뻐했던 스물셋 청년 전태일. 나무에 걸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보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 세계가 그를 한마음으로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❶ 전태일 기념관 전경

❷ 전시실 끝자락 추모 편지를 써서 매달 수 있는 나무

짧지만 영향력이 큰 전태일의 삶

전태일은 대한민국 노동, 인권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60년대 산업화 시기. 산업현장에서 인권이라고는 발견할 수도 없었던 어두운 시기에, 그는 스스로 몸을 태우며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혔다. 그의 분신 서거는 수많은 지식인을 일깨웠고, 시민들, 정치인들도 노동법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전태일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전태일기념관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그가 살았던 시절의 대한민국은 참 모진 곳이었다. 혹사당했던 민중은 전태일의 불꽃을 보고 의식이 깨어날 수 있었다. 전태일 기념관은 그가 희생하여 앞당긴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❶ 전태일이 일했던 비좁은 다락을 그대로 재현했다
❷ 생애 주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복도
❸ 전태일이 남긴 사진과 편지를 전시해 놓았다